

BATMAN's WAR



영화 <브라이드 위>로 돌아온
Kate Hudson

현대미술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여자
Sam Taylor Wood

'핫'한 패션 제국, 엘리 타하리
후세인 살리안과의 가상 인터뷰

올봄 여자들의 입술을 지배할 립스틱들

Lipstick展

New Whitening

트레일 러닝에 도전하다
새 코를 장만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현빈
진짜 배우, 류승룡
서우의 에메랄드빛 미래
장기하와 얼굴들

Men We Love!

34 Fashionable Guys, Smart Shopping for Men,
Men's Grooming, Couple Items for Valentine's Day

FEBRUARY 5,500원



ISSN 1228-1115

Elie & Rory Tahari's

FASHIONABLE LIFE

엘리 타하리와 그의 아내 로리는 우아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며 '핫'한 패션 제국을 이끌고 새거포넥(Sagaponack)에서 뉴욕의 소호까지 전진하고 있다.

글/ Anamaria Wilson

Photographed by
Douglas Friendman

세상의 모든 결혼 중매인이 인정하듯 원래 사람은 반대 성격끼리 마음이 맞는 법인데, 엘리 타하리와 로리 타하리만큼 이 법칙을 훌륭하게 증명하는 커플도 없다. 엘리가 완벽한 매너와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점잖은 신사라면, 로리는 발랄하고 수다스러우며 언제나 순간순간을 즐기기 때문이다. 한 예로 머라이어 캐리와 닉 캐논(Nick Cannon)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햄튼(Hampton)의 대저택에서 열린 파티에서 로리가 머라이어 캐리와 신나게 춤을 추는 동안, 엘리는 맨스플로어 가장자리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조용하게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 독특한 커플이 극적이고 흥미로운 삶을 살아왔으리라 짐작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들은 10년 전 엘리의 미혼여섯 번째 생일파티에서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 당시 그는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가족을 꾸리고 싶어했는데, 파티를 준비하면서 손님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아파트 곳곳에 촛불을 켜놓고 신부를 달라고 기원했을 정도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일 소원이 아이들의 헛된 상상일 뿐이라고 믿지만 엘리의 경우 현실로 이루어졌다. 그는 로리에게 첫눈에 반했고, 이는 곧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의미했다. 반면 로리의 경우 어느 정도의 설득이 필요했다. 우선 엘리와 로리는 스무 살의 나이 차이가 났고 일에 빠져서 평생 총각으로 살았다는 엘리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죠. 또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었다니 어딘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당시를 회상하며 말한다.



새거포백 해변에서 그녀가
아끼는 말 초콜릿(Chocolate)과
함께 포즈를 취한 루리 타하리.
드레스는 약 \$699로 Elle Tahari,
귀고리는 가격 미정으로
Cathy Waterman, 반지는
약 \$1517로 Sevan 제품.

패션 에디터/ Amanda Ross

저택 뒤뜰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엘리와 로리 타하리 부부



롱아일랜드 햄튼의 끝자락, 대서양을 바라보는 새거포넬 해변에 위치한 대저택에서 지금 엘리와 로리는 퍼스널 셰프 브라이언(Brian)이 준비한 감자와 콩을 곁들인 생선 요리를 즐기며 그들의 첫만남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다. 엘리는 조용한 평소 모습과 달리 갑자기 소리 내어 포러너(Foreigner)의 노래 한 소절을 부르며("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당신이 내게 가르쳐주길 원해") 그날 밤 그가 느꼈던 감정을 표현한다.

이 독특한 커플의 로맨스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이제 타하리 가족은 두 명의 아이들, 제레미(Jeremy, 7세)와 조(Zoe, 4세)를 포함하게 되었다. 그들은 새거포넬의 저택과 지난 2005년 매스컴의 황제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으로부터 사들인 소호의 거대한 아파트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그들의 상반된 성격은 결혼생활은 물론 사업 면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그들은 정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완벽하게 완성해주죠." 수년 전 타하리 부부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운영하는 럭셔리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을 때, 그곳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그들과 친하게 된 셀러브리티 셰프 장-조지 봉게리히텐(Jean-Georges Vongerichten)이 말한다.

타하리 부부의 라이프스타일은 해변의 저택과 도시의 아파트에서 친구들을 위해 끊임없이 여는 파티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가의 집과 스포츠카, 미술품, 집안일을 돕는 수 명의 스태프를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



저택의 외부 전경

구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이 여는 파티에는 거만하지 않고 캐주얼한 무언가가 있다.

"엘리와 로리는 유대인 특유의 하이미시(Haimish)한 자상함과 친절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절친한 친구인 바니스 뉴욕 백화점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사이먼 두넌(Simon Doonan)이 말한다. "하이미시는 히브리어의 독일계 방언인 이디시어(Yiddish)로 가족적이고 따뜻하며 캐주얼함을 의미하죠. 그들은 원한다면 어느 누구보다 컵대를 세울 수 있지만 절대로 거드름을 피우는 일이 없죠. 롱아일랜드 해변에 위치한 그들의 저택만 해도 기분 좋은 분위기를 자랑하죠. 평키하면서 도수수한 멋이 있어요."

새거포넬의 저택은 19세기에 지어진 헛간으로 버몬트(Vermont) 주에서 가져온 것이다. 높은 천장과 들보는 이 건물이 먼 옛날 농장의 일부였음을 증명하지만 전반적인 공간은 모던하고 미니멀하며 히로시 스키모토(Hiroshi Sugimoto), 엘리엇 퍼켓(Elliot Puckette), 버트 스텐(Bert Stern), 데이비드 라차펠(David La Chapelle) 등의 작품들로 장식되어 있다. 해변에서 보내는 타하리 가족의 주말은 아이들과 함께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구성된다. 엘리는 비크람 요가의 광팬이며, 로리는 승마를 즐긴다. (작년 로리가 자신의 말 초콜릿(Chocolate)에서 낙마해

등을 다치는 불상사가 있었다. 그녀는 현재 천천히 몸을 단련하며 다시 승마를 즐길 준비를 하고 있다.) 아울러 그들은 셀 수 없이 많은 디너 파티를 열었는데, 그중 자선단체 'God's Love We Deliver'의 기금 마련을 위해 연 파티에는 마사슈튜어트, 패션 포토그래퍼 크레이그 맥킨, 디자이너 토리 버치 등을 비롯해 5백 명의 손님들이 초대되었다. 타하리 부부는 파티 외에도 영화 시

사회를 열거나(그들은 <시네마 천국>, <로마의 휴일> 같은 옛 영화를 즐겨 상영한다) 해변에 캠프파이어를 준비해 마시멜로를 구워 먹곤 한다. 물론 이러한 모든 이벤트에 격식이란 없다.

"우리는 파티를 여는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기에 문이죠." 로리가 설명한다. "저는 전형적인 게자라라서 그런지 집에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엘리도 집에서 시간을 보내길 위해서 집을 우리 삶의 중심적인 장소로 만든 것뿐이에요. 손님을 많이 치르다 보면 사람들이 해하게 되고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죠. 우선 편안해야 파티를 진정으로 즐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오래 있다 가게 되고, 또 오고 싶게 되죠."

장-조지 봉게리히텐도 이에 동의한다. "그들은 언제나 즐거운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로리는 연에게 일을 해도 될 거예요. 정말 멋진 파티를 열 줄 아니까요. 그들의 아파트에 영화를 보러 가면 캐러멜 팝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들었던 모든 스낵이 구비되어 있죠. 트럼프 아파트 같은

“우리는 파티를 여는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기 때문이죠.”



언제나 멋진 파티 호스트인
로리가 부엌에서 꽃을 다듬고 있다.
드레스는 약 \$9990로 Oscar
de la Renta 제품, 귀고리는
로리의 소장품.

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돌보기에 비싼데, 로리의 경우 손님들을 돌보는 데 모든 신경을 쏟아붓는답니다.”

물론 그들이 이토록 화려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것은 계속 성장하는 엘리의 패션 사업 덕분이다. 자수성가한 케이스인 엘리는 자신의 부와 성공에도 취되는 일이 결코 없으며, 회사의 부회장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마케팅과 광고, 홍보를 담당하는 아내로부터 많은 자금을 받는다고, 이들 부부는 현재 5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오는 3년 안에 10억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엄청난 수치와 높은 판매율은 타하리를 동급 가격대의 브랜드 중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의 하나로 만들었다. 엘리 타하리 브랜드는 지난해 10단위 수준의 판매율 증가를 이뤘으며, 뉴욕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의 톱 10 브랜드 서열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런던의 셀프리치 백화점과 하비 니콜스 백화점의 바이어들도 고객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추가 주문을 넣는다고 정신이 없다.

타하리의 광고 캠페인 또한 70년대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은 에지한 스타일로 유명한 포토그래퍼 테리 리치드슨이 담당하면서 브랜드에 '쿨' 한 느낌을 부여했다. '타하리의 옷은 우아하면서도 세시하죠. 타하리 부부가 세계 광고 캠페인을 부탁한 것도 제가 바로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농담조로 말한다. "그들은 제가 마음대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줬죠. 세련되면서 '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일하기가 즐거웠습니다.”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엘리의 성공은 아주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의 어느 고아원에서 태어난 엘리는 스무 살 때 단돈 1백 달러 만을 가지고 뉴욕으로 건너왔다고. "공항을 나와 커다란 자동차와 노란 택시들을 보며 생각했죠. '이곳이야말로 내가 있을 곳이야.'” 그는 낮에는 가먼트 디스트릭트(Garment District, 뉴욕 시내 원단 업체와 가봉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구)에서 전기공으로 일하고, 밤이 되면 그리니치 빌리지 지구의 한 부티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뉴욕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는 디스코 댄스가 전성기였던 70년대로, 그는 클럽으로 향하는 여자들의 화려한 옷차림에서 영감을 받아 밤새도록 아바(ABBA)와 리오 세이어(Leo Sayer)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에 완벽한 세시한 댄싱 드레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그가 고안해낸 튜브 톱과 손수건 드레스는 큰 인기를 끌었다. "스타일 208번이 특히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저지 소재로 만들어진 당시 디자인을 회상하며 그가 말한다. "저는 더 많은 영감을 얻기 위해 클럽을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첫 패션쇼는 1977년 막 문을 연 스튜디오 54에서 열렸을 정도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엘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데이웨어로 전환을 했고 그의 실용적인 미학과 뛰어난 피팅감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했다. 이러한 엘리가 패션계를 비껴놓을 혁신적 영웅은 아닐지 몰라도, 70년대 나이트라이프에서 영감을 받은 그의 스타일은 오늘날 그가 선보이는 디자인에서도 계속 발견할 수 있다. 스튜디오 54와 그곳을 방문하던 비앙카 재거 같은 셀러브리티들은 이제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적어도 머라이어 캐리와 그녀의 친구들이 있으니까. **B**



아래층의 소파공간

타하리 부부의 침실



높은 천장과 노출된 들보는 집안 전체에 막대한 분위기를 부여한다



엘리의 집에 요리를 준비하는 테리리크와 조 드레스의 유즈는 모두 가려미장으로 Dior Haute Couture 제품



드레스룸 겸 욕실



SPECIAL
TODAY

열린 공간을 자랑하는 거실과 식당

헤어/ Davide Torchio
메이킹업/ Vincent Da Silva
(Gi Ferrer Salon)
소극 스타일링/ Lance Boyd